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방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오민구 병원장은 진료협력센터장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하 파주 병원)을 22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파주병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병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지역의 료계와 병원이 당면한 현안을 1시간 이상 논의하고 환담했다. 환담 전에는 파주병원 김현승 병원장과 임득호 응급의학과 실장, 간호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병원 주요시설을 안내하는 등 방문 내내 두 기관의 우호관계가 전해졌다.

파주병원 김현승 병원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의뢰된 환자 만족도가 타 병원보다 높아 믿고 보내고 있다."며 "협력적인 진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02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장이 회장으로 있는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월희)는 메르스 치료에 참여한 회원소속 병원 간호부에게 복지기금을 지원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을 대하는 국가적 대응체계에 문제점을 나타냈지만, 자신과 가족의 감염 가능성까지도 끌어안으며 최전방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간호사의 따뜻한 미담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든 병원에서 보여주었다. 본원에서조차 환자의 인공기도관 삽관을 지켜보았던 한 의료인은 "온몸을 가린 방호복으로 온통 땀에 젖은 상태에서 의사와 간호사 단 두 명이 철저히 격리된 공간에서 힘겹게 치료를 하는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기금은 메르스 치료와 예방에 큰 역할을 전담했던 회원병원에 전달되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지원받은 복지기금을 메르스 치료 등에 노고가 컸던 부서(내과계중환자실, 101병동, 외래, 응급실 등)에 전달하여 그동안 수고와 고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03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봉사부, 수덕사와 정혜사로 승가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구병수)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덕숭총림 수덕사와 정혜사(충남 예산군)로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지도법사 증휘 스님, 신경과 김광기 교수, 한방내과 임성우 교수와 연우회 회원 25명이 참여하여 대중 스님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물리치료 및 영양수액투여 등의 진료를 했다. 특히, 지도법사 증휘 스님은 하안거동안 선방에서 용맹정진 하시는 스님들의 면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겨울에 발생하는 병을 여름에 치료하는(동병하지, 冬病夏治) 삼복첩(三伏貼) 공양을 하여 스님들이 사계절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들은 건강증진상담과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수덕사, 정혜사의 맑고 밝은 정기를 받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우회는 앞으로도 의료봉사와 지역사회 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인 나눔 보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04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소방서와 합동으로 현장대응훈련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일산소방서 119고봉센터(센터장 황규홍 소방경)와 합동으로 7월 16일 현장대응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원내 화재 발생 시 빠른 진압을 위해 소방차 진입 경로와 배치, 소방대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방재실, 전기실 등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도 점검했다.

시설관리팀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기적인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규홍 119고봉센터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현장배치와 구조활동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시행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적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05 보양식으로 삼복더위를 날려 버리세요!

영양팀은 7월 23일 중복을 맞아 그동안 메르스 퇴치를 위해 고생했던 교직원들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병원의 지원을 받아 '영계백숙'과 시원한 '수박'을 후식으로 제공했다.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복날에는 예로부터 더위에 지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보양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음식이 닭을 이용한 메뉴들이다. 지난 초복에는 '찜쌀 누룽지 장각백숙'으로 직원들의 기운을 북돋은 바 있다.

영양팀은 앞으로도 맛깔스러운 음식에 정성을 더하여 환자들과 교직원들이 입맛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월 친절 간호사



한방재활의학과 안현미 간호사

한방병동, 한방외래와 접촉할 일이 많지 않지만 가끔 전화로 재활스케줄을 확인 할 때면 늘 밝은 목소리로 응대해 주시고 잦은 스케줄 변동에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받아 주십니다. 얼굴 보며 함께 하지는 않지만 안현미 선생님의 밝은 전화 목소리와 응대만으로도 절로 기분 좋아 집니다. 밝은 목소리, 친절하신 모습, 늘~ 간직해 주세요.

알 리 미

이마트 건강강좌

일시 : 7월 31일(금) 15:00 | 장소 : 이마트 풍산점 3층 교육실
강사 : 내분비내과 김경아 교수 | 주제 : 당뇨병의 이해와 관리